

碩士學位論文

감물染色을 利用한 발(簾)디자인 研究

指導教授 朴 炫 映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産業디자인學科

邊 恩 美

2 0 0 5

감물染色을 利用한 발(簾)디자인 研究

指導教授 朴 炫 映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月 日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産業디자인學科 工藝디자인 專攻



邊恩美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5年 月 日

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목 차

Summary

I. 서론

- 1. 연구목적 1
- 2. 연구내용 및 방법 2

II. 발(簾)과 창살의 이론적 고찰

- 1. 발의 이론적 고찰 3
 - 1) 발의 의의 3
 - 2) 발의 변천과정 3
 - 3) 발의 분류 6
- 2. 창살의 이론적 고찰 11
 - 1) 창살의 의의 11
 - 2) 창살의 변천과정 11
 - 3) 창살의 종류 15

III. 창살문양을 이용한 발(簾)의 현대적 조형성

- 1. 창(窓)문화와 한국인의 조형의식 21
- 2. 창살문양의 조형성 22
- 3. 창살문양을 이용한 발(簾)의 현대적 표현 24

IV. 감물염색의 이론적 배경

- 1. 감물염색의 유래 31
- 2. 감물염색의 특징 32
- 3. 염색방법 34

V. 작품제작 및 설명

- 1. 제작의도 및 방법 35
- 2. 작품설명 40

VI. 결론 58

- 참고문헌 59

그림목차

<도1> 선사시대 유적인 암사동 움집	5
<도2> 논산 이씨택의 거적문	5
<도3> 주렴(珠簾)	5
<도4> 연(輦)에 치는 가마 발	8
<도5> 연에 쳐진 가마 발	8
<도6> 여(輿)에 치는 가마 발	8
<도7> 여에 쳐진 가마 발	8
<도8> 문 발	9
<도9> 대청 발	9
<도10> 창 발	9
<도11> 방 장	9
<도12> 대(竹)발	10
<도13> 삼베 발	10
<도14> 모시 발	10
<도15> 직물 발	10
<도16> 고구려 통구12호분	13
<도17> 고구려 도제가옥모형	13
<도18> 백제 동탑편	14
<도19> 신라시대 가형토기	14
<도20> 통일신라시대 고달사지부도 살창	14
<도21> 부석사 무량수전 정자살	14
<도22> 부석사 조사당 살창	14
<도23> 수덕사 대웅전 빗살	14

<도24> 용자살	15
<도25> 용자살	15
<도26> 정자살	16
<도27> 정자살	16
<도28> 띠살	17
<도29> 띠살	17
<도30> 아자살	17
<도31> 아자살	17
<도32> 완자살	18
<도33> 완자살	18
<도34> 빗살	19
<도35> 빗살	19
<도36> 솟대살	19
<도37> 솟대살	19
<도38> 귀갑살	20
<도39> 귀갑살	20
<도40> 흥정실씨 집	26
<도41> 필리프 티로씨 집	26
<도42> 모노컬렉션 지장(紙幟)	27
<도43> 디자이너 장웅복씨 침대	27
<도44> 이성순씨 퓨전아파트	27
<도45> 김지희. 창살문 남염(藍染). 1999	29
<도46> 김혜순. 창과 매듭. 1999	29
<도47> 설희야. 꿈1997-08. 1997	29
<도48> 조용철. 공간97-II. 1997	29
<도49> 유명희. 아리랑96. 1996	29



<도50> 손재호. 창-99. 1999	29
<도51> 정인희. 세상사는 이야기. 1995	30
<도52> 송수미. 잠재의식. 2001	30
<도53> 이효선. 한국의 소리. 2001	30
<도54> 김옥현. 옛날에. 2003	30
<도55> 김종순. 한지 커텐. 2003	30
<도56> 호세희. 무제. 2003	30
<도57> 제주 돌감	33
<도58> 작품에 이용한 감물염색방법	37
<도59> 감물염색을 하고 말린 횡수에 따른 색상비교	37
<도60> 삼술	38
<도61> 핀터박기	38
<도62> 두 번 접어박기	39



작품목차

작품 1. 세상풍경	40
작품 2. 여유로움	42
작품 3. 아름다움	44
작품 4. 고요함	46
작품 5. 선비의 멋	48
작품 6. 석양의 빛	50
작품 7. 싱그러운 하루	52
작품 8. 아침햇살	54
작품 9. 빛과 향기	5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 Study on Bal Design Utilized Dyeing with the Liquid of Persimmon

- Centering around the Shape of a Latticed Window-

Byun, Eun-mi

Industrial arts Design Major

Graduate School of Industry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Hyun-young



Summary

In the living culture of our forefathers, Bal that can express sentiment and consciousness of beauty has been used for various purposes as a tool necessary for daily life carrying an element which is industrial and decorative.

This Bal plays a leading role in expressing an artistic aspect statically, directly and indirectly in our living space being changed into various appearances, and in recent years, it lays emphasis on an aesthetic element with practical function as being much interested in our own traditional things and Bal made of hemp is seen newly.

In addition, since beauty and excellency of natural dyeing is recognized and preference degree for natural dyeing is great, Bal of an industrial art object into dyeing with the liquid of persimmon, natural dyeing can be enough indicated of simple natural beauty and our national sentiment as a material of natural intima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nd develop Bal that combines traditional beauty with modern molding utilizing the shape of a latticed window, Jeju traditional process dyeing with dyeing with the liquid of persimmon to ramie fabric that our nations usually has used in summer since old times to introduce our tradition into the living environment to go to westernize gradually.

Centering around molding of the shape of a latticed window, to study modern Bal design utilized dyeing with liquid of persimmon examined theoretically about meaning of Bal and a latticed window, the process of its change, its kinds, and in the study about modern molding of Bal that utilized the shape of latticed window, looked into the molding consciousness of Korean window culture, harmonized traditional characteristic with modern sense.

This study made up the geometrical structure of the shape of latticed window newly, modernized, made nine pieces of Bal, and came to the next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and its work.

First, I knew that the shape of a latticed window is rich in the chance of expression with Bal design making, utilizing in dyeing work as a proper material that can express our own design in our modern society.

Second, I could present new style of design that could be coincident with modern molding beauty using the shape of a latticed window as motive of design.

Third, I could give visual, mental comfort as natural quality sense of ramie fabric and soft and polite color sense that had low color tone which could express traditional beauty of Jeju.

If you reevaluate artistic value of Bal as traditional industrial art, analyze, make an attempt at more active change to design, material, shape, color tone given modern sense to our own traditional beauty, you will be able to develop new value as traditional art.

I. 서론

1. 연구 목적

우리 선조들의 생활문화 속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삶의 지혜와 정취가 깃들여 있다. 수공예의 하나인 전통적인 발(簾)은 별을 가리고 바람을 통하게 하면서도, 명암의 차이로 집안을 환히 들여다 보이지 않게 하는 것에서 길조의 의미를 가진 그림이나 문자의 문양을 넣어 생활공간에 표현하는 장식적인 것까지 선조들의 지혜와 멋스러움을 지니고 있다.

대나무나 갈대 등으로 만든 전통적인 발도 병풍의 역할부터 농작물의 건조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마제(麻製)의 발이 새롭게 보여지면서 실용적인 기능과 함께 심미(審美)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한편 오늘날 경제발전과 함께 자연적인 미(美)가 많이 발전해왔지만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삶의 질과 자연의 아름다운 생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향유(享有)하려는 현대인이 늘어나고 있다.

발(簾)공예품과 자연염색인 감물염색의 접목은 자연친화적 소재로 우리 민족의 정서와 소박한 자연미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구화가 보편화되어가는 지금의 생활환경에 우리의 전통을 도입하기 위하여, 옛부터 우리 국민들이 여름에 즐겨 사용하던 모시에 제주도의 전통염색법인 감물염색을 하고 창살문양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미(美)와 현대적 조형성을 겸비한 발(簾)을 디자인하고 개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우리 선조들의 생활문화 속에 깃든 미(美)의식과 창살문양의 조형성을 중심으로, 감물염색을 이용한 현대적인 발(簾) 디자인 연구를 다음과 같은 내용 및 방법으로 한다.

첫째, 발(簾)과 창살의 의미, 변천과정 그리고 발과 창살의 종류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창살문양을 이용한 발의 현대적 조형성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한국의 창(窓)문화가 갖는 조형의식을 살펴보고, 창살문양이 가지는 전통적 특징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작품의 디자인은 창살문양의 기하학적 구조를 재구성하여 현대화하며, 창(窓)으로 비쳐지는 빛의 요소를 형상화 한다.

넷째, 문헌을 통하여 자연염색인 감물염색의 유래 및 특징을 알고, 염색과정 등은 작품제작을 하면서 익힌다.

바느질 방법은 세 겹 박음질인 쌈술과 핀턱(Pin tuck)박기, 두 번 접어박기를 한다.

II. 발(簾)과 창살의 이론적 고찰

1. 발(簾)의 이론적 고찰

1) 발(簾)의 의의

발(簾)이라 함은 가늘게 쪼갠 대오리나 갈대 등을 엮어서 만든 것으로 별을 가리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하며 가옥의 외부와 내부 공간 사이에 시야를 차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궁중에서 왕비가 조신을 직면할 때나 어린왕자가 즉위했을 때 그의 어머니나 조모가 왕을 대신해 정사를 처리하도록 하는 수렴청정(垂簾聽政)등 유교적 사고방식이 강했던 조선시대에는 남녀가 대면하는 경우에 발을 걸치고 경계하도록 하여 병풍의 역할도 하였다.

이러한 발들에는 가정의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의 희(囍).수(壽).복(福)등 문자나 그림을 직접문양(直接紋樣)으로 사용하였다.

발(簾)은 지역과 용도에 따라서 점차 발전하여 여러 가지 발의 재료와 형태로 변형되었고 장식적인 면으로 표현되어지면서 공예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2) 발(簾)의 변천과정

발의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선사시대의 주거형태였던 자연동굴이나 바위틈을 이용한 수혈주거(竪穴住居)는 땅을 깊게 파고 제방을 쌓아 층계를 만들어 위로 출입을 하도록 한 주거형태로 지붕은 풀로 덮어 그 모양이 무덤과 같았다고 한다.¹⁾

원시주거형태에서 외부와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문’의 형태<도1>를 찾을 수 있는데 자연에서 얻어지는 나뭇가지와 풀로 엮어서 만든 원시적인 발(簾)의 모양을 한 가리개와 같은 문<도2>이었다.

1) 김정기; 「한국목조건축」, 일지사, 1980, p.17

발의 사용은 지금으로부터 약 2천년 전 중국의 한나라 제왕이나 후비의 무덤 안에 사용된 대나무발이 그 시초로 보여지며 이 무덤 속에 사용된 발은 수문(壽紋)이나 용봉문(龍鳳紋)으로 장식되었다고 한다.²⁾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궁중의 정전(政殿)에 구슬을 꿰어 만든 주림(珠簾)<도3> 또는 주박(珠箔)이라고 부르는 발을 사용하였다.

신라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발의 사면에 감싼 비단의 질을 규제함으로써 계급에 따른 차이를 두었다.

고려시대에도 발을 사용하였으나 일반 평민사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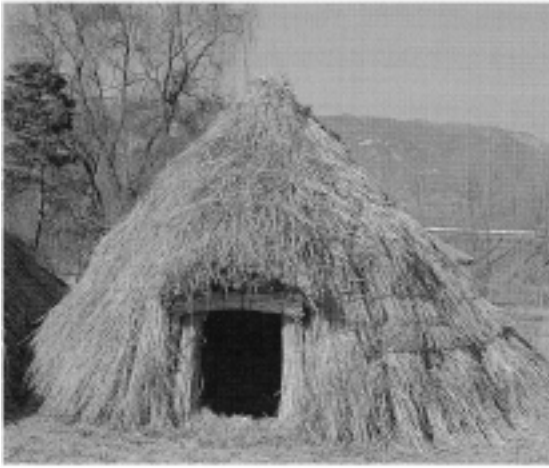
조선조 후기부터는 발의 재료와 용도도 다양해졌으며 일반 평민들도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발을 만드는 재료도 지역에 따라 대나무가 귀한 중부 이북지방에서는 수수깡이나 쭉대를 이용하였으며 형겅으로 만든 발도 등장하였는데 겨울철에 방의 외풍을 막기 위한 일종의 보온용 방장이었다. 그리고 그 용도에 있어서도 생선이나 고추 등을 말릴 때 사용하거나 어촌에서 고기를 잡을 때 또는 추녀 끝에 달아 비바람이 들이치는 것을 막는데도 사용하였다.³⁾

발은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나 삼국시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그동안 다각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오랜 시대를 거쳐 오는 동안 시대적으로 변천과정(變遷過程)이나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공예품과 달리 재료나 형태 등에 있어 변함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발의 재료가 천연재료인 대나무가 주였는데 다양한 재료가 그 시대상황에 의하여 새로운 재료로 개발되지 못하였으며 형태에 있어서도 실내의 공간을 가려주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형태유지가 불가피 하였기 때문이다.

2) 김삼대자; 「가정과 에너지」, 한국에너지관리공단, 1980, p.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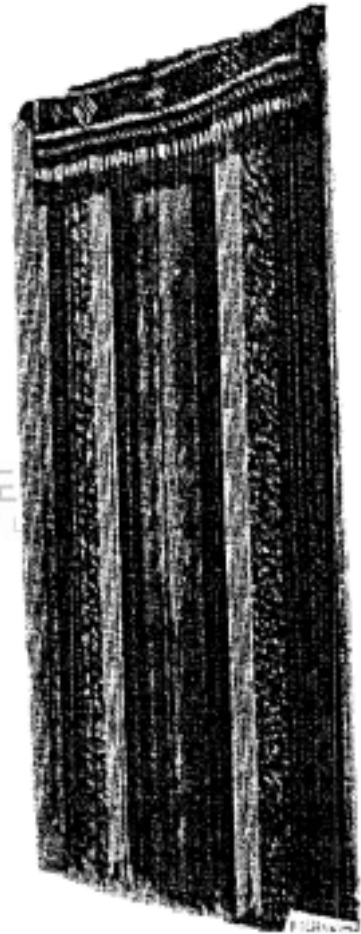
3) 최하림; 「한국인의 멋」, 지식산업사, 1974, p.121



<도1> 선사시대 유적인 암사동 움집



<도2> 논산 이씨택의 거적문



<도3> 주렴(珠簾)
(세종대 박물관 소장)

3) 발(簾)의 분류

발이 사용되는 공간이 실내이므로 사각형의 고정된 형태의 변화는 용도에 따른 크기의 차이와 서민과 귀족의 신분에 따라 발의 사면을 감싼 비단의 질에 의한 장식적인 면에 차이가 있다.

(1) 형태별 분류

① 가마 발

· 연(輦)에 치는 가마 발<도4><도5>

연(輦)은 밑에 수레를 달아 사람 또는 말이 끄는 것인데 가마의 좌우, 앞에 발을 드리웠으며, 대오리로 엮어 날줄을 청명사(淸明絲)로 구갑문(龜甲紋)을 장식하고 다양한 색깔의 비단 형질을 비늘모양으로 늘어뜨려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임금이타는 가마 발로서 크기가 49 × 68 (cm) 로 비단 술을 길게 늘어뜨려 발(簾)이라기보다는 벽걸이 장식과 같은 것으로 색상이 매우 밝다.

· 여(輿)에 치는 가마 발<도6><도7>

보통 사람의 가마 여(輿)에도 좌우, 앞에 발을 드리웠는데 연(輦)과 같이 화려한 장식은 하지 않았다. 가마의 양옆의 창을 가리기 위한 가마 발로서 발의 짜임새나 장식이 매우 독특하며 크기가 50.5 × 39.4 (cm) 인 이 발은 사면에 폭이 넓은 비단으로 감싸고 가운데 두 줄로 길고, 짧은 술을 달았고 술 끝에는 삼각형의 비단 천을 달고 삼각형 상단부에 만자문(卍字紋)으로 장식되었다.

② 문 발<도8>

문에 드리우는 발로서 90 × 180 (cm) 로 날줄이 3cm간격으로 조밀하게 짜여지고 가운데 길상문자와 문양을 넣고 발 사면에는 폭이 좁은 비단으로 싸여 있다.

③ 대청 발<도9>

마루와 마당사이에 드리우는 발로서 사면에 비단으로 싸여져 있고 날줄 간격이 조밀하며 날줄로 구갑문(龜甲紋)을 엮고 가운데 쌍희자(囍字)를 장식했다. 이 발은 상류층에서 사용한 발이다.

④ 창 발<도10>

작은 창에 드리우는 발로서 60 × 60 (cm) 크기의 정사각형 형태로 사면에 비단으로 싸여지고 가운데는 운문(雲紋)과 수자(壽字)의 길상문자로 염색되어졌다.

⑤ 방장<도11>

방의 외풍을 막기 위해서도 사용되었지만 벽장식이나 칸막이 역할도 하였다. 면(綿)과 푼사(絲)로 되어있고 대부분이 가운데는 수복강녕(壽福康寧)의 길상문자로 장식되었다. 각 모서리에는 박쥐문(紋)이나 운문(雲紋)을 푼사로 평수하고 금사(金絲)로 징검 수(繡)하여 만들었다. 방장은 비단이나 목면으로 만들어 주로 상류층에서 사용되었다.⁴⁾

(2) 재료별 분류

① 대(竹)발<도12>

대나무로 만든 장식용 발로서 폭이 좁고 상하가 긴 발로 사면에 비단으로 좁게 싸여지고 날줄의 간격이 변화 있게 엮어져 있다.

② 삼베 발<도13>

삼베로 만든 벽걸이 장식용 발로서 굵은 삼베 위에다 흑색으로 운문(雲紋)과 백색을 날염(捺染)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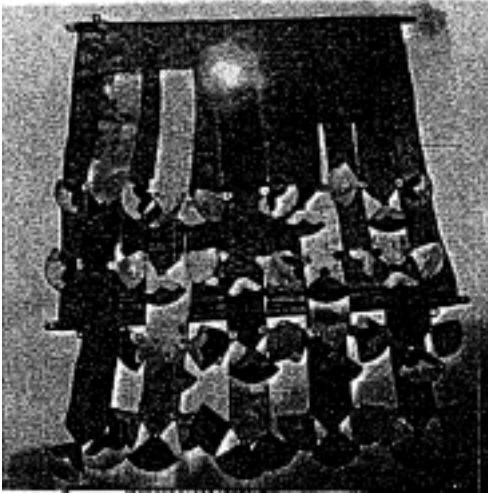
③ 모시 발<도14>

모시로 만든 벽걸이 장식용 발로서 고전적인 문양을 현대감각에 맞게 수놓았다.

④ 직물 발<도15>

실(絲)을 이용하여 직조된 직물 발로서 사용된 실도 마사나 아바카사, 면사, 푼사 등으로 제작된 벽걸이 장식용 발이다. 직조의 기술과 사의 굵기에 따라서 다양한 문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색상도 실을 염색하여 조화된 색으로 나타내 디자인 하였다. 재료의 발달과 기술의 발전으로 대(竹)에서 실(絲)이라는 재료의 획기적인 발전을 보았으며 직조된 발을 만들게 되면서 현대감각에 맞는 직물공예품으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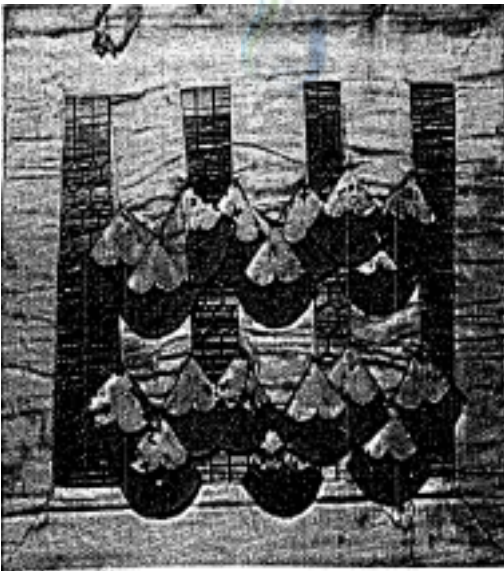
4) 박정원; “한국의 발(簾)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1985, pp.21~26



<도4> 연(輦)에 치는 가마 발
(온양 민속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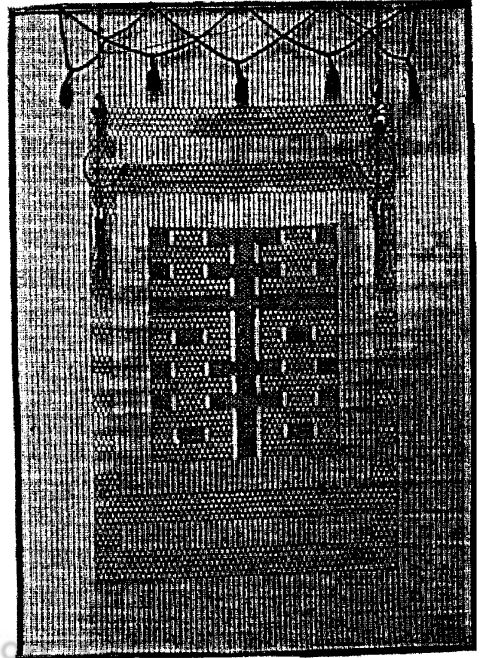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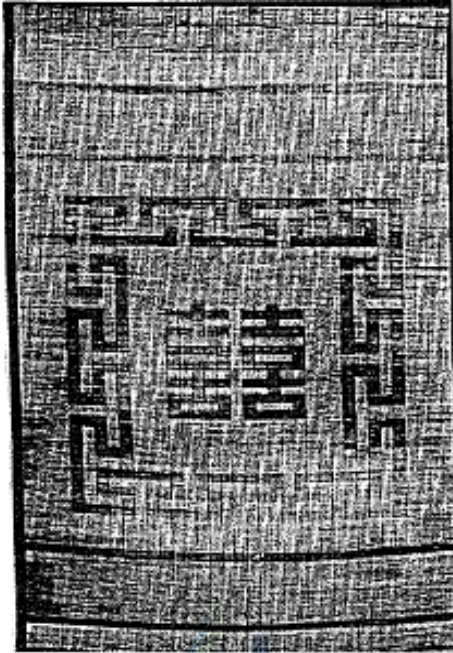
<도5> 연에 쳐진 가마 발



<도6> 여(輿)에 치는 가마 발
(덕성여대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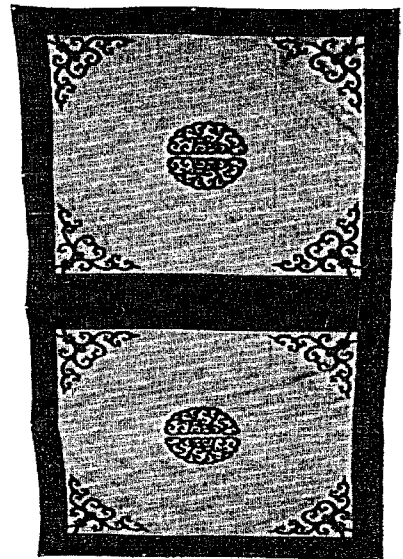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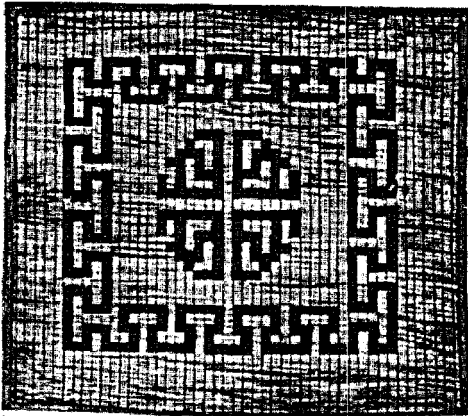
<도7> 여에 쳐진 가마 발



세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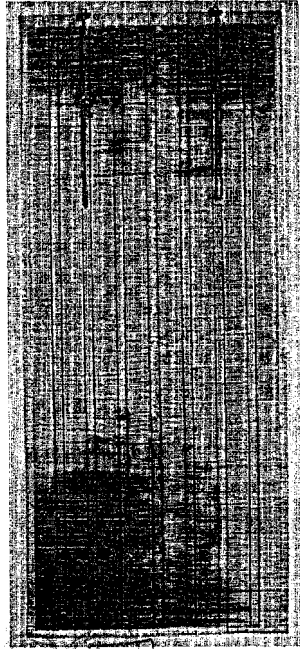
<도8> 문 밧(홍익대 박물관 소장)

<도9> 대청 밧(국립 민속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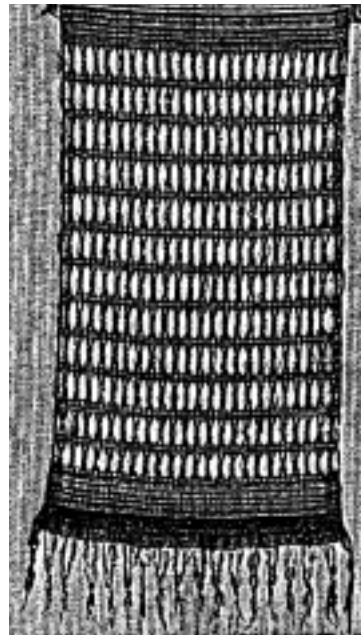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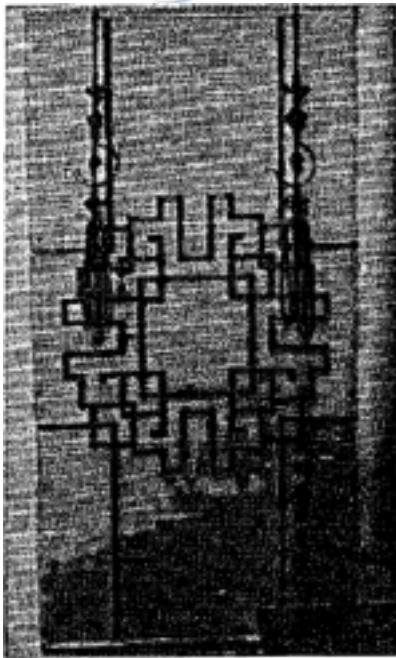


<도10> 창 밧

<도11> 방장(홍익대 박물관 소장)



<도12> 대(竹) 밭 (홍익대 박물관 소장) <도13> 삼베 밭



<도14> 모시 밭

<도15> 직물 밭

2. 창살의 이론적 고찰

1) 창살의 의의

창(窓)은 건축물에 있어 기본적인 구성요소에 속하는 것으로서 문과 함께 외부 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임과 동시에 빛을 받아들여 실내를 밝게 하고 공기를 환기시켜 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창살이라는 말은 “창의 울거미에 살을 박았다.”는 행위를 복합시켜 부여한 용어로서 창에 살을 메운 것을 창살이라고 부른다.⁵⁾ 우리나라 창살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창호지를 안으로 발라 방안의 공간 즉, 내면성을 중요시함으로써 밝은 햇빛이 창호에 비칠 때 창살의 짜임새로 율동적인 그림자를 내부 공간에 투영시켜 독특한 정취를 느끼게 한다.

창살은 수직·수평이 근본이 되며 이러한 수직·수평의 십자형은 조화의 근본인 압수의 결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 “—”이 따로 존재하였을 때는 막연한 선에 불과하던 것이 둘이 교합하면서 만물이 형성되는데 이른바 음양의 이치라 할 수 있으며 “+”으로 교합하면 운동력을 갖는다. 이 운동력을 “살”이라 부르기도 한다.

옛부터 어느 사물에서 내뿜치는 기운을 “살”이라 하였다. 창문의 뼈대가 되는 대오리는 문살이라 하였고 부채 살, 햇살, 물살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창살은 기능적인 구조 그 자체보다는 “살”이 갖는 비중이 훨씬 무겁다. 이런 의미에서 창살은 단순히 창살의 외적인 조형성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정신적인 의의를 나타내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창살의 변천과정

창살은 선사시대 수혈주거(竪穴住居)에 사용하였을 때 가장 원시적인 창 발생으로 시작되어 창에 관한 분명한 자료가 나타나는 것은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조선시

5) 신영훈; 「한국의 고 문양」,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73, p.35

대에 들어오면서 제작기술의 발달로 창 의 형태와 창살의 문양도 다양해지고 있다.

시대별로 건축물에 나타난 창살문양의 변화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삼국시대

고구려 쌍영총 북면 벽화 안악 1호분 과 통구 12호분의 벽화<도16>에 건물의 창이 나타나고 문고리 등이 그려져 있지만 창살문양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평양 부근에서 출토된 도제 가옥 모형<도17>에는 벽에 두개의 둥근 창이 있는데 이는 조형상의 기술이기보다는 등글게 뚫는 것이 쉬워서 그렇게 했다고 여겨진다.⁶⁾

백제 동탑편<도18> 사면의 중앙에는 문으로 추정되는 방향의 구멍이 있고 좌우에는 빗살로 구성된 방형의 창호가 있어 백제의 창호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신라시대에는 경남 합천군에서 출토된 가형토기(家形土器)<도19>에서 문짝과 빗장을 볼 수 있다.

(2) 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에는 석조물과 석탑뿐이며 목조건물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석조 건축물의 창살 형태만 알 수 있다. 경남 울산군에 있는 망해사지 석조부도와 경기도 여주군에 있는 고달사지 부도<도20>에 살창이 새겨져 있으며 이는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이 손쉽기 때문에 보편적인 형태로 쓰였을 것이다.⁷⁾

(3)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창살문양은 통일신라시대의 창살문양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건축물인 부석사 무량수전 및 조사당, 수덕사 대웅전 등은 고려말기의 것으로 초기의 창살문양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무량수전에는 정자살<도21>과 창호가 있으며, 조사당의 중앙 출입문은 띠살 문양으로 되어 있고 중앙 출입문 좌우에는 광창(光窓)으로 사용된 살창<도22>이 있다. 수덕사 대웅전은 정면3칸 모두 세 짝의 빗살창호<도23>를 달았다.⁸⁾

6) 주남철; 「한국의 문과 창호」, 대원사, 2001, pp.16~27

7) 주남철; 상계서, pp.27~31

(4) 조선시대

조선시대 창살 문양은 현존하는 유물이 많아서 이에 대한 연구 자료가 충분하며 그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하다. 이들 창살 문양은 일반주택에서 사용된 용자살, 띠살, 아자살, 완자살 등의 단순하면서도 직선적 구조의 창살이 사용되었고 궁궐 건축에는 정자살, 빗살 등의 육중한 창호가 있었으며, 사찰 건물에는 꽃살이 사용되어 왔다.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창살에 나타난 형태를 중심으로 조형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도17> 고구려 통구12호분



<도18> 고구려 도제가옥모형

8) 주남철; 상계서, pp.34~45

9) 박영순 외;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1998, p.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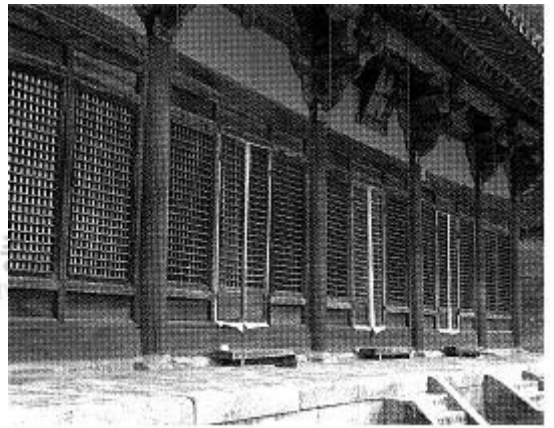
<도18>백제 동탑편(부여박물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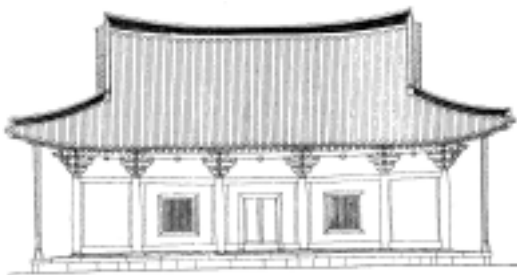
<도19>신라시대 가형토기



<도20> 통일신라시대 고달사지부도 살창



<도21> 부석사 무량수전 정자살



<도22> 부석사 조사당 살창



<도23> 수덕사 대웅전 빗살

3) 창살의 종류

조선시대의 창살은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발달되어 온 모든 창살의 양식을 기반으로 발전되었다.

(1) 용자살<도24><도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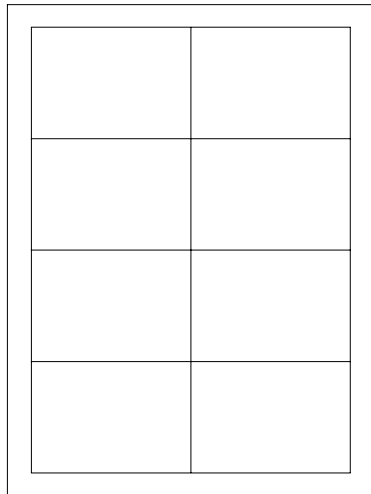
민가에서는 주로 미단이로, 사찰에는 승방에, 왕궁에는 내전에 주로 사용된 용자살은 한자의 용자(用字)에서 유래한 것으로 수직으로 한줄, 또는 두 줄의 살대에 가로로 두 줄 혹은 석 줄의 살대를 대어 만든 형태이다.

조선시대 창살 중 가장 살이 적은 것이 특색으로 창호지의 면적이 넓어 시원스럽게 보이고 여백의 맛을 풍부하게 할뿐만 아니라 문을 여닫는데 손쉽게 고안된 형태이다. 또한 살이 적어 빛이 많이 들어오므로 주로 남향 창에 사용되었으며 남성들의 거처인 사랑채에 덧 창호 다음에 다는 쌍창으로 많이 쓰인다.¹⁰⁾

이와 같은 형태는 기본형이며 문의 크기, 높이 등에 따라 그 변형이 나타난다.



<도24> 용자살



<도25> 용자살

10) 주남철; 「한국 건축의 장」, 일지사, 1979,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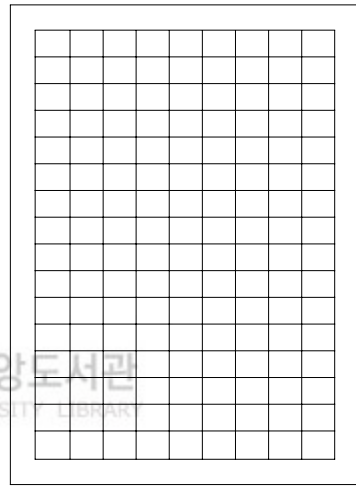
(2) 정자살<도26><도27>

사찰이나 왕궁의 정면 창호와 교창으로 많이 사용된 정자살은 한자의 정자(井字)에서 온 것으로 가로 살과 세로 살이 네모 반듯이 교차된 형태이다.¹¹⁾

문양 면에서 볼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구성되어져 여러 가지 문양으로 변형될 수 있다.



<도26> 정자살



<도27>정자살

(3) 띠살<도28><도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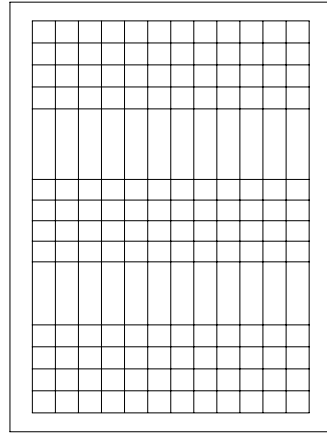
띠살은 홀 문만으로도 충분히 실내온도를 보존할 수 있고 다른 창살보다 견고하여 일반주택, 사찰, 왕궁 등에 창의 덧문이나 여닫이로 사용되었다.¹²⁾ 가장 기본이 되는 띠살의 수는 가로살의 상대와 하대의 살이 4개 중대가 5개 세로살은 11개 정도다. 용자살과 비교하면 육중한 느낌이 들며 주로 아침이나 낮에는 띠살 창을 열어 젖히고 용자살을 안문으로 두어 방안의 채광을 조절했다.

11) 최하림; 전계서, p.42

12) 장기인; 「한국 건축 대계Ⅱ」, 보성문화사, 1980, p.6



<도28> 띠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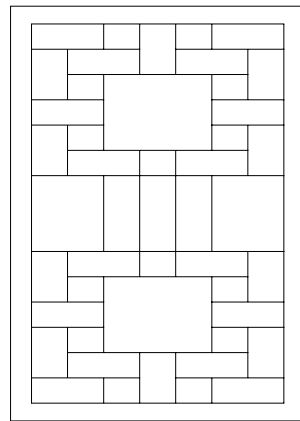
<도29> 띠살

(4) 아자살<도30><도31>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미닫이로, 사찰에서는 승방, 왕궁에서는 내전에 주로 여성적인 공간에 많이 사용되어진 아자살은 한자의 아자(亞字)에서 온 것으로 중앙에 커다란 사각형을 놓고 그 네 변에 각각 살을 붙여 이를 상하로 연결하는 형태로 장방형, 가로장방형, 세로장방형의 모양을 지니고 있다.¹³⁾



<도30> 아자살



<도31> 아자살

13) 김수석; “한국문양의 고찰과 조형적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제7편, 1968, pp.203~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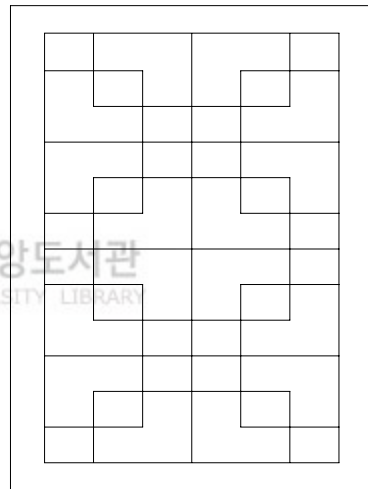
(5) 완자살<도32><도33>

궁궐이나 기념 건축물 또는 귀족 주택에 사용되어진 완자살은 기본 문양은 구자(口子)의 네 귀를 다른 구변으로 각각 물려놓은 형태이다.

완자(卍字)는 만자(萬字)의 옛 글자로 중국의 음이 완 으로 부르는데서 완자문으로 불리 운다. 창살에 사용될 경우에는 1개 또는 여러 개의 세로 살을 넣어 만들어진 것으로 아자살과 마찬가지로의 비례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자체 내에서 크고 작은 구획이 윗동적으로 변화를 이루고 있다.¹⁴⁾



<도32> 완자살



<도33> 완자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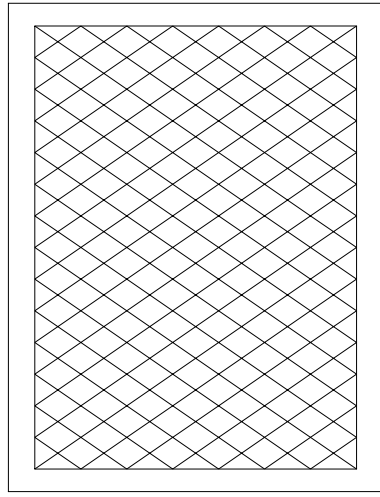
(6) 빗살<도34><도35>

정자(井字)살과 함께 궁궐이나 사찰의 전각에 많이 사용되어진 빗살은 좌우로 45° 비스듬히 누운 형태이다.

14) 김영중; “창살문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2,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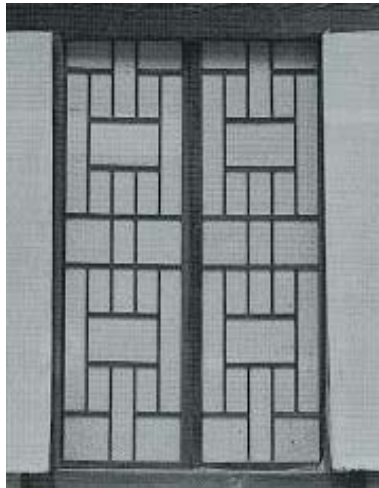
<도34> 빗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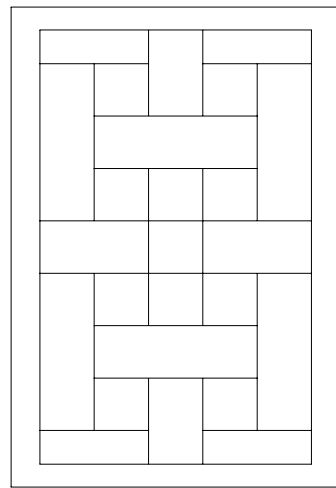
<도35> 빗살

(7) 숫대살<도36><도37>

숫대살은 섬을 할 때 쓰던 산가지(算木)를 늘어놓은 형태로서 일반주택의 사랑채나 사찰의 승반(陞班) 등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도36> 숫대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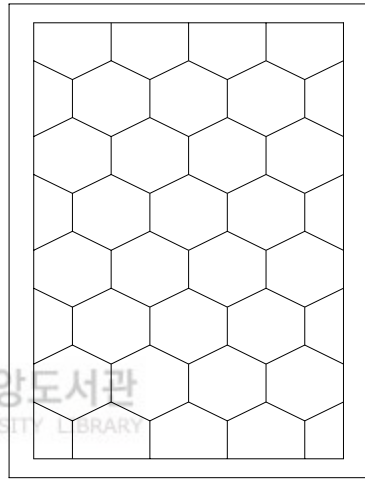
<도37> 숫대살

(8) 귀갑살<도38><도39>

귀갑살은 거북이 잔등과 같은 연속적인 육각형무늬의 살대들을 짜 넣은 창살로써 조선시대 담장 문양에 많이 나타나며 의복이나 장식품, 부적, 가구, 벽면, 능화판 등에 고루 사용되었다.



<도38> 귀갑살



<도39> 귀갑살

Ⅲ. 창살문양을 이용한 발(簾)의 현대적 조형성

1. 창(窓)문화와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窓)은 채광과 통풍이 주된 기능이다. 그리고 건물에 있어서 가장 눈에 잘 띄이는 부분이므로 건물의 얼굴이라고 하며, 창에 나타나는 창살은 집이 나타내는 표정이라 한다. 따라서 창을 이루는 살과 그 살에 장식되는 문양은 그것이 장식되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창은 방에 사는 사람의 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달 밝은 밤 가난한 선비가 글을 읽기 위해 월광의 빛을 구하는 곳이 바로 이 창문으로부터 이고, 나무 끼는 낙화(落花)의 모습이 창호지에 어릴 때 규방 처녀의 가슴 설레임이 여기에 있으며,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숨죽여 님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는 연인의 마음도 이곳에 어리어 있는 것이다.

뒤뜰의 경관이 내려 다 보이고 안마당으로 들어서는 손님을 맞이하며, 봄과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는다.”¹⁵⁾ 라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창은 그 집에 사는 이의 마음을 다양하게 변용시키며 계절에 따라 새로운 감각을 지니게 하는 정신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창문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의 필수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창살의 형태는 그 가옥의 분위기를 북돋아주는 구실을 한다. 또, 창살의 수려(秀麗)한 문양은 좋은 뜻이 담겨있는 소재를 선택하여 표현함으로써 주택에 주거하는 인간의 미적(美的)이나 종교적, 정신적인 면을 표현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로써 창(窓)은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와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조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능적인 요소가 함께 나타나 있어 전통문화의 대표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15)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95, p.406

2. 창살문양의 조형성

우리나라의 장식적이고 공예적인 창살문양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한국의 미(美)는 '선의 미'라고 한다. 따라서 한국전통 건축에 나타난 외적 조형미도 선적(線的)구성에 있다고 할 때 한국전통 건축예술을 가장 잘 표현한 목조 건축에 나타나는 특징을 들 수 있다.

목재의 재질감은 석재에 비해 부드러우며, 은은하고, 자체의 무늬를 지니고 있으며 굽고 가는 나무들이 하나의 힘의 구조 속에 질서 있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목조건축에서 가장 멋을 낸 부분 중의 하나인 창호의 살 짜임새가 갖는 선적 구성미는 지붕에 나타난 선, 처마의 서까래에 나타난 선, 기둥에 나타난 선과 노출된 나무결의 선과 어우러져 한국 전통 건축의 뛰어난 조형미를 나타내고 있다.

창호는 출입 및 통풍의 기능적인 면을 염두에 두면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창살의 선적구성미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¹⁶⁾ 이것은 우리 전통건축의 조형 요소 중에서 가장 한국적인 미감을 보여준다.

창살문양의 조형미는 기하학적인 비례 미에 있으며 이러한 기하학적 구성이 화면을 구성할 때 필수적인 기본요소가 바로 점, 선, 면이다.

점, 선, 면 등의 도식적(圖式的) 조형요소를 이용하여 화면의 비례와 균형을 유지하는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에 의한 조형구성 방식이 바로 기하학적 구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기하학적형태는 시각적으로 분명하고 간결한 이미지를 준다.¹⁷⁾

예술작품에 기하학적형태가 등장한 것은 오래전의 일이지만 직접적으로 큐비즘(Cubism)의 발전과 칸딘스키(Kandinsky)의 추상예술론에 의해 자극되었고 몬드리안(Mondrian)에 의해 신조형주의(Neo-Plasticism)가 일어났다. 칸딘스키는 선

16) 김영기; 「외부공간에서 본 창살의 조형미」, 디자인, ROL.31, 1979, p.51

17) Kandinsky. W; 「점·선·면」, 열화당, 1984, pp.47~48

을 ‘점의 운동으로 생기는 동적인 것’이라 정의했다.

창살에 나타난 기하학적 구성미의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선이며 모든 선의 기본은 직선이다.

직선은 점의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면 일차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며 직선이 어떤 방향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직선은 수직선, 수평선, 대각선으로 구분된다.

창살문양은 기본적으로 수직·수평의 교차와 사선의 배열 등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수직으로 구성된 살창은 일정한 살의 두께 및 단면 모양을 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되어 대칭적이며 반복적인 균제미를 이루고 있다.

수직과 수평으로 구성된 용자살, 정자살, 띠살, 아자살, 완자살, 솟대살은 수직선이 가지는 의미와 수평선이 가지는 균형과 중력의 지지로 안정되고 수동적이며 차고 무한한 움직임의 가능성 중에서 간결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직선과 수평선은 서로 대립관계에 있으면서도 서로 교차하면서 신비한 느낌을 준다.

사선으로 구성된 빗살은 수직·수평선의 기본적이고 딱딱한 인상과는 달리 불안정 속에서도 활동력이 나타난다.

창살의 형태는 기하학적인 선으로써 중앙을 중심으로 상·하·좌·우로 균제 형식을 취하고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해 주며 시각적으로 안정감과 질서감을 나타낸다.

이렇듯 창살의 짜임새에서 보여지는 반복의 율동성과 단순하고 부드러운 조화미, 자연과 조화되는 선의 미, 단순한 선만으로 구성된 크고 작은 공간에서 느껴지는 여백의 미, 창호지를 통한 음영의 회화성 등은 한국의 창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개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전통창살문에 나타나는 선적인 구성의 아름다움은 간결하고 명쾌한 대칭성을 기본으로 기하학적형태의 현대적 조형미를 지니고 있다.

18) 최하림; 전게서, p.46

3. 창살문양을 이용한 발(簾)의 현대적 표현

창(窓)과 창살문양은 바라보는 이의 눈에 큰 영향을 주며, 집의 표정이라 하여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이러한 창은 빛을 중화시키는 종이를 사용하여 여름날 문이나 창을 열어 개방하고, 특정기간동안 반투명체인 발(簾)을 드리워 은은한 정서를 그대로 묻어나게 한다.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와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기하학적 비례미의 조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인의 정서를 나타내는 발(簾)은 “창” 문화와 한국인의 조형의식을 표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명암의 차이로 외부에서는 안이 들여 다 보이지 않고 안에서는 바깥이 내다보이지 않아 옷 벗고 시원히 누웠다가도 사람이 어른거리면 얼른 옷 입고 손님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이 모두 발 덕분이다.

발의 틈사이로 어렴풋한 달빛이 비쳐 들어와 풀 무리의 벌레들 노래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드는 한여름 밤의 풍아한 정취는 그 무엇과도 비교 될 수가 없다. 여름서정을 표현한 염영(簾影)이니 염파(簾波)니 하는 말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발을 통하여 보이는 풍경이나 사물이 물결처럼 출렁이는 것을 두고 하는 표현들이다.

이러한 풍경들을 만들어 선사하는 것이 발(簾)이며 정서적인 면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정취가 깃들여 있는 전통적인 발(簾)이 창살문양의 기하학적 조형성과 함께 현대생활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응용,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의 생활문화에는 아름다운 미(美)의식과 조형미가 가득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깊이가 내재되어 있다. 창살문양은 인테리어용품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문양을 도식화하여 실내공간에 한국적 정취를 느낄 수 있게 장식하기도 한다.

1) 창살문양을 이용한 생활공간에서의 표현

· 전체적인 실내공간을 한국적으로 연출한 금속공예가 홍정실씨 집<도40>에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번뜩인다. 전통 문 짝을 에어컨 가리개로, 현관에도 빗살문양의 문 짝을 짜 넣어 파티션으로 사용하고 있다. 홍정실씨 집의 불박이 창살문양은 불발기¹⁹⁾창을 변형시킨 형태이다. 불발기창 아래쪽에 궁판을 넣고 정자살을 바탕으로 가운데에 8모의 울거미 안에 빗살을 짜 넣은 형태이다. 한국의 전통창호를 파티션으로 제작하여 공간을 구획함으로써 공간에 대한 가변성을 보여주는 디자인이다.

· 창살을 이용하여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침대와 소파도 잘 어울리는 한옥으로 개조한 ‘콘페리 인터내셔널’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프랑스인 필리프 티로씨집<도41>이다. 거실 문을 띠살문양의 여단이와 완자살 문양을 변형으로 한 불발기형태의 미단으로 공간의 크기와 느낌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창호를 현대 공간에 알맞게 응용했다.

· ‘모노 콜렉션(Mono Collection)’은 2002년 봄 콜렉션에서 전통가구를 근거로 현대적인 해석을 곁들인 디자인으로 종이 가진 빛의 투과성을 살린 정자살문양의 ‘지장(紙槩)’<도42>을 선보였다. 지장에 나타난 정자살문양은 자연에 다가선 듯 하며 편안함과 소박함이 느껴진다.

·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담백하고 세련된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디자이너 장웅복씨. 그의 침대<도43>는 헤드보드가 없이 한지 안에 조명을 넣어 빛이 은은하게 비쳐 나올 수 있도록 아자살 문양을 응용하였다. 아자살 문양에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형태를 배치하여 현대적인 가구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하였다.

19) 불발기란 育障紙와 같은 문의 중앙부에 직사각형, 팔각형 등의 울거미를 만들고 이 속에 정자살, 완자살 등의 모양을 짜 넣은 문을 말한다.

· 섬유예술가 이성순 교수의 퓨전 아파트<도44>는 정자살과 띠살문양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모시커튼이 현대적인 공간과 전통소재의 조화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디자인으로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의 느낌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실 정경이다.



<도40> 홍정실씨 집



<도41> 필리프 티로씨 집



<도42> 모노컬렉션 ‘지장(紙槩)’



<도43> 디자이너 장응복씨 침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도44> 이성순씨 퓨전 아파트

2) 창살문양의 기하학적 조형성을 표현한 섬유 작품

· 김지희의 창살문 남염(藍染)<도45>에서는 전통 창살문양을 현대적인 기하학적 양식으로 변형하여 현대적이고 새롭게 표현하였으며, 선의 끊어짐과 맺힘을 조화롭게 연결하여 선의 배치에 따른 울동감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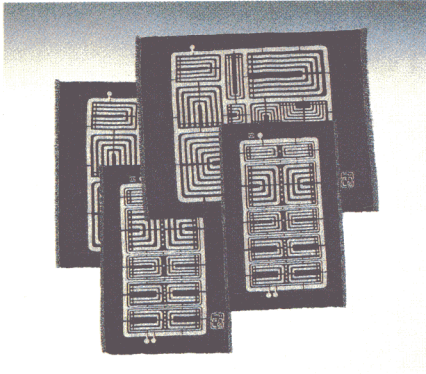
· 김혜순의 창과 매듭<도46>에서는 띠살의 기하학적 조형요소인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주실과 금사를 이용하여 전통창살문양과 한국적 매듭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였다.

· 설희야의 꿈1997-08<도47>에서는 수직·수평의 절제 있는 화면구성으로 외곽에는 선을 단순화하여 다양한 색감으로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꽃 창살 문양과 정자살문양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시선을 화면 중앙에 집중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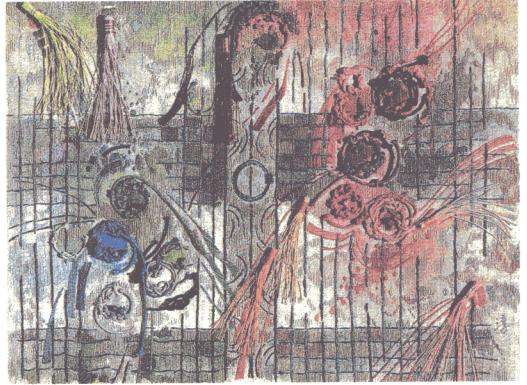
· 조용철의 공간97-II<도48>에서는 창호의 면 분할에서 오는 미의식을 재구성하였으며 빛을 이용하여 표면의 색상을 구사하면서 전통적인 것을 현대적인 것으로 이미지화 하였다. 모든 사물에 내재된 기하학적 형태를 천으로 감싸는 대비를 보여주면서 감춤과 드러냄의 양면을 표출하였다.

· 유명희의 아리랑96<도49>에서는 아자살문양의 형태를 통일되고 조화롭게 구성하였으며 전통적 회화와 생활문양을 현대적 공예기법으로 접목시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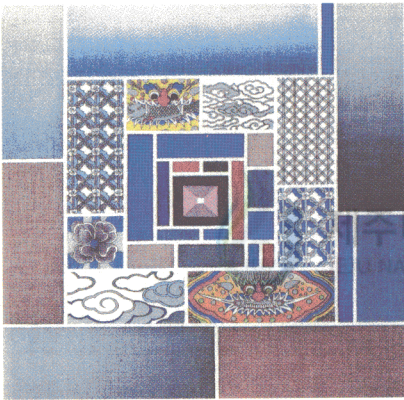
· 손재호의 창-99<도50>에서는 창살의 기하학적 양식을 미묘한 양상의 균형으로 도입 하므로 써 자유로우며 조화로운 구성표현을 하였다. 규칙적인 선들을 굵고 진하게 함으로서 대칭적인 평형상태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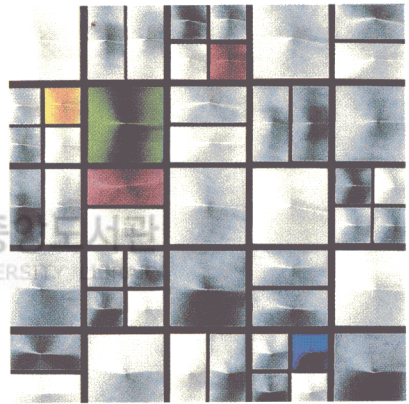
<도45> 김지희. 창살문 남염(藍染). 1999



<도46> 김혜순. 창과 매듭. 1999



<도47> 설희야. 꿈 1997-08. 1997



<도48> 조용철. 공간 97-II. 1997



<도49> 유명희. 아리랑 96.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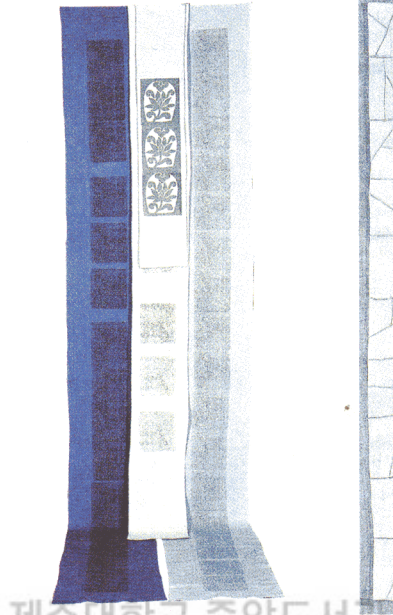


<도50> 손재호. 창-99. 1999

3) 현대적 디자인의 발(簾)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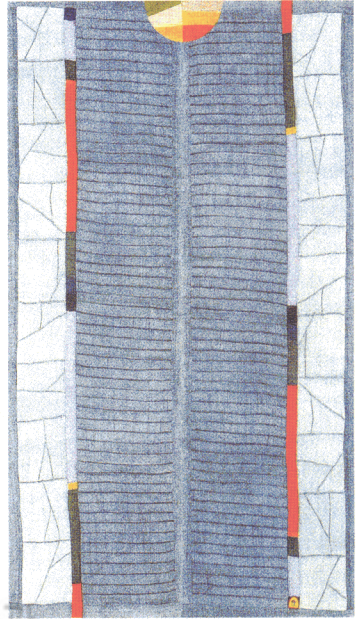


<도51> 정인희.
세상사는 이야기.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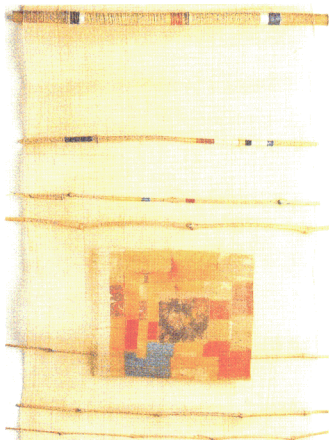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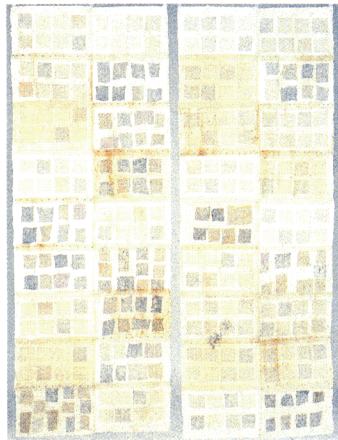
<도52> 송수미.
잠재의식.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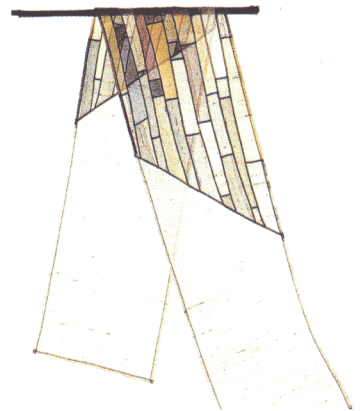
<도53> 이효선.
한국의 소리. 2001



<도54> 김옥현.
옛날에. 2003



<도55> 김종순.
한지 커튼. 2003



<도56> 호세희.
무제. 2003

IV. 감물염색의 이론적 배경

1. 감물염색의 유래

갈옷은 제주도민의 대표적인 노동복으로 농부들의 필수복이자 일상복으로 무명옷에 감물들이 들어간 옷이다. 옷에 감물을 들이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으나 몇 가지 견해가 있다.

지금부터 약 700여년 전 한 고기잡이 할아버지가 낚시 줄이 자주 끊어지는 것을 못 마땅히 여겨 낚시 줄에 감물을 염색하고 20여일 썩힌 돼지나 소의 피를 바르고 나서 건조시키고 다시 술에 찌서 건조시킨 후에 고기를 잡으니 줄이 질기고 뻗뻗하여 끊어지지 않고 고기가 잘 잡혔다고 한다.²⁰⁾

또한 고려 우왕8년(1382년)에 운남양왕(雲南梁王)의 태자와 묘족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무명옷에 감물염색 하여 입는 그들의 풍속이 제주에 전해졌을 것²¹⁾이라고 하는 견해와 이조 중기에 350년 동안 관 속에 있다가 1982년 출토된 면직물 중 감물염색한 면직물이 파손됨이 적고 비교적 완전한 형태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감물이 방부제 역할을 했기 때문²²⁾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370년 전에 이미 한반도의 남부지역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는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지방이면서 화산재 토양으로 농업생산이 매우 낮아서 농경산물(農耕產物)을 의복재료로 사용하기가 어려웠고 초원지대를 이루는 중산간 지대에서 고대로부터 우(牛),마(馬),양(羊)등이 방목되었으며 가죽이나 모직물을 이용하기가 쉬웠다.

20) 진성기; 「남국의 세시풍속」,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9, p.259

21) 탐라성주유사 편찬위원회; 「탐라성주유사」, 고씨중문회 총본부, 1979, p.125

22) 이정숙; “이조중기출토 면직물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2,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내지화정책(內地化政策)으로 제주도는 정치, 사회, 경제면에서 완전히 한반도 문화권으로 편입되게 되고 육지처럼 목면이나 삼베옷을 입게 되었다. 하지만 척박한 토질과 공물로 바치기 위한 마필생산(馬匹生産), 해물채취(海物採取)등에 역매여 식량과 의복재료의 자급자족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이 육지에서 사다 썼고 자연히 옷감은 귀했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무명이나 삼베옷에 감물염색을 할 경우 질겨지고 옷의 관리가 편해지며 입어서 낡으면 다시 염색하여 새 옷처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감물 염색법은 대단히 유용한 방편이 되었다.²³⁾

갈옷은 가죽옷에서 유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으며 갈옷이라는 단어가 제주도에서만 있는 것으로 보아 이조시대 이후로 물자가 풍부하지 못하고 세탁 할 물도 귀하여 감물 염색하는 풍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제주도의 고유한 옷이자 염색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감물염색의 특징

1) 감의 특징

우리나라의 감 재배의 역사는 고려 명종(1138년)때의 고욤(Koyom)²⁴⁾에 대한 기록이 있고 제주의 감 재배에 관해서는 조선시대의 남사록(南槎錄)에 “제주 성안에 감이 많이 있으나 새끼감과 같고 씨가 많으며 맛이 없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제주돌감도 크기가 작고 씨가 많아 남사록의 기록을 실증해주고 있다.²⁵⁾

제주 돌감<도57>은 직경과 길이가 3~4cm 이며 감 4되는 약 5kg으로 즙을 짜면 약 1.7ℓ의 감즙이 나온다.

23) 이해선; “갈옷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1994, p.37

24) 고욤이란 감의 한 종류이다.

25) 이해선; 상계서, p.30

제주 돌감의 풋감에는 떫은맛의 탄닌(tannin)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햇빛에 노출되면 산화되어 갈색으로 변하며 다른 감보다 풀기가 더 많이 있다.



<도57> 제주 돌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감물염색된 천의 특징

과거에는 무명에 감 염색을 하였으나 지금은 사용범위에 따라서 시판되고 있는 면직물(광목, 소창 등), 마직물, 견직물 등 여러 종류의 천연섬유에 염색을 한다.

감물염색은 갈색계통으로 더러움이 덜타고 빨래할 때 비누를 쓰지 않아도 때가 잘 빠질 뿐 아니라 푸새 등 다른 잔손질을 할 필요가 없다.

질겨서 쉬 떨어지지 않으며 1~2년쯤 입다 풀기가 없거나 색이 바래면 다시 염색하여 새 것같이 사용 할 수 있다. 땀에 젖은 옷을 그냥 두어도 썩거나 상하는 일이 별로 없고 통풍이 잘 되며 가시 같은 잡물(雜物)이 붙지도 않는다.

열전도율이 낮으며 광선의 차단효과도 있고 ¹⁾좀이나 벌레가 일지 않는다.

풀을 메기지 않았지만 감즙에 의해 뽀뽀해지므로 처음에는 피부를 약간 자극 시키는 것 같으나 몇 번 입으면 부드러워지며 부지런한 농민들의 노동복으로 사용하기에 좋다. 가방이나 쿠션, 여름용 홀이불 등의 실생활용품에도 적합하다.

3. 염색방법

감물염색은 풋감의 탄닌이 가장 많고 햇볕 량이 가장 좋은 7~8월경에 하고 염색시의 온도는 상온에서 한다. 염색시간은 염색할 천이나 옷을 염액에 담가 적당히 주무르면서 10분 정도 경과하여 직물이나 옷 전체에 감즙이 흡수되면 햇빛에 널어 건조시키기를 반복한다.

· 감물염색의 재래법은

1)천의 풀기를 없앤다.

2)염색하기 전에 풋감을 따서 꼭지를 떼어내고 남도구리(나무로 만든 큰 그릇)에 놓고 덩드렁막개로 으갠다.

3)감물이 나오면 천을 넣고 주물러서 천에 골고루 감즙이 묻도록 하고, 돌돌 말면서 중간에 감물을 넣어주면서 밟아준다.

4)감 찌꺼기를 곱게 떨어 낸 뒤 구김이 없게 잘 손질하여 말린다.

5)말린 천에 물을 축이고 구김이 없게 손질하여 다시 말린다.

6)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 할수록 색상이 짙은 갈색으로 변한다.²⁶⁾

26) 박순자; 「갈옷 -그 특성과 전망-」, 경춘사, 2001, pp.29~31

V. 작품제작 및 설명

1. 제작의도 및 방법

1) 제작의도

우리나라 전통 창살문은 나에게 많은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해마다 추운 겨울을 지나 꽃피는 봄이 오면 창문을 걷어내 묵은 먼지와 구멍 난 창호지를 뜯어내고 씻는 작업을 했었다. 이런 날이면 다섯 자매와 가족이 총동원되어 재갈대는 이야기 소리와 맛있는 부침개 냄새로 집안 가득했다. 따뜻한 햇살아래 씻어 놓은 창문이 마르면 밀가루 풀로 새 창호지를 정성껏 발라 놓았다.

어린시절 잠들며, 잠깨면서 바라보았고 집안 풍경 중 대부분을 차지하던 창살문에서 보여 지는 공간은 조형적 비례에 의해 수직·수평이 기하학적 요소로서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해주며 단순하게 생략되어 겹쳐서 나타나는 형상성은 반복되는 리듬감을 형성한다.

또한 공간 속에서 스며 나오는 빛의 표현은 화면에서 밀도감을 산출해 내고 빛의 상태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그림자의 형상은 새로운 조형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창살’은 실생활에 이용되는 문을 처리 하는 소박한 미의식을 담고 있으면서도 현대적 감각의 세련된 조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창살문양을 주제로 연작형태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작품에 사용된 모시는 우리의 전통적 재료로서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식물 섬유이며 그 원료가 되는 모시풀은 습기가 많고 따뜻한 기후의 지방에서 잘 자란다. 이 모시풀의 줄기를 가늘게 켜고 삶고 말리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 태모시를 다시 전문가들이 한올 한올 가늘게 만드는데 이렇게 실로 만들어진 상태를 모시 굵이라 한다.

모시 굵의 상태에 따라 모시의 등급이 매겨지는데 보통 아주 가늘고 고르게 다듬어진 모시를 최고급으로 분류한다.

모시 굵을 씨실과 날실로 분류하고 콩가루를 입혀 베틀에 올려 짜면 비로소 한필의 모시가 완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시로 발(簾)을 제작하였을 때 가볍고 질기며 통기성이 우수하고 반투명이기 때문에 어떤 섬유보다 햇살이 적당량 투과되어 따뜻한 햇볕을 실내로 끌어들이며 천연소재 특유의 편안함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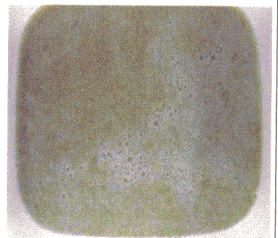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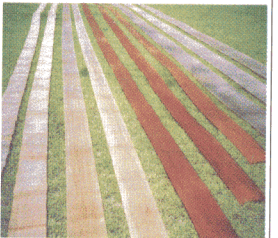
흔히 모시는 여름 패브릭이라고 단정 짓지만 겨울 내내 모시 발을 걸어도 특별히 차갑다는 기분은 들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모시는 창살문양의 기하학적 구성미의 가장 두드러진 요소인 선을 표현하는 바느질 땀이 디자인적 효과가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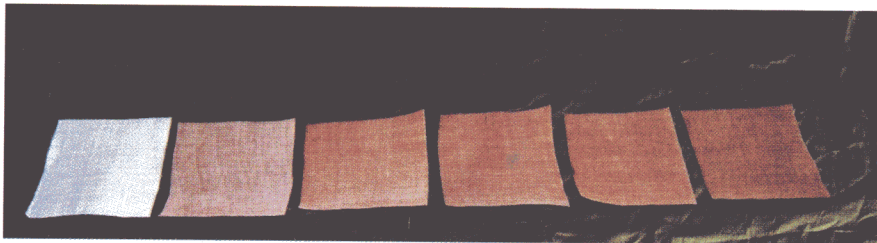
차가운 느낌의 모시에 제주도의 향토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감물염색의 채도가 낮은 은근하고 부드러운 따뜻한 색감으로 창살문양에서 수직선과 수평선, 사선 등의 선의 교차로 이루어지는 용자살, 정자살, 띠살, 아자살, 솟대살, 귀갑살 형태의 통일감과 균형감, 안정감과 간격의 비례 등의 조형적인 특성을 재구성하여 현대화하며 창으로 비쳐지는 빛의 요소를 형성화 하고자 하였다.

2) 제작방법

(1) 작품에 이용한 감물염색방법 <도58>

<p>① 천의 풀기를 없애 준비한다.</p>		<p>② 염색하기 전에 풋감을 따서 꼭지를 떼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녹즙기에 넣어 감즙을 짤다.</p>	
<p>③ 감물이 나오면 준비한 천을 넣고 주무른다.</p>		<p>④ 천이 충분히 젖으면 감즙을 짜내고 구김을 잘 펴서 햇볕에 말린다.</p>	
<p>⑤ 말린 천에 물을 축이고 구김이 없게 손질하여 다시 말린다.</p>		<p>⑥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 할수록 색상이 짙은 갈색으로 변한다.</p>	

매염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철매염을 하면 탄닌이 철과 반응하여 회색조의 흑색을 낼 수 있다.



모시 2회 3회 5회 7회 9회

· 감물염색을 하고 말린 횟수에 따른 색상비교 <도59>

(2) 바느질방법

① 쌈술<도60>

바느질법은 시접 한 쪽은 조금 넓게, 또 한 쪽은 조금 좁게 맞추어서 곱게 박은 뒤, 넓은 시접 쪽을 꺾어서 시접이 좁은 쪽으로 얹어 놓고 그 위를 눌러 박는다. 이때도 시침질을 하고 나서 겉에서 박으면 더 곱게 된다.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하여 박는다.
한쪽 시접이 더 넓게 한다.



넓은 시접을 접어서 좁은
시접을 감싼다.



감싼 시접은 감침질로 몸판에
고정시킨다.



펼 친 모 습

② 핀턱 (Pin tuck)박기<도61>

일정한 간격의 주름을 박음질하여 고정시키는 것으로 장식적이며 기능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트리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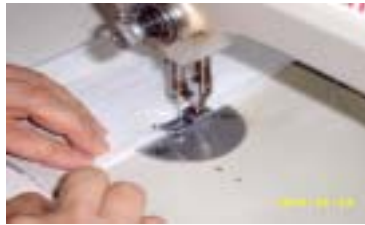
옷감의 표면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턱을 잡아 옷감에 변화를 주고 입체감과 선의미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되며 턱 폭이 0.2~1cm정도 되는 것을 핀턱(Pin tuck)이라고 한다.



일정한 간격으로 격인 산에
초오크로 표시 한다



격인 산을 따라 늘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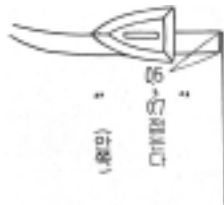
격인 산을 늘려준 0.2~1cm
안에서 박음질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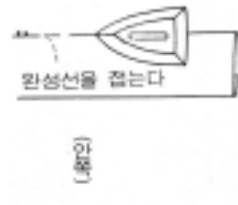
펼 친 모습

③ 두 번 접어박기<도62>

옷감을 두 번 접어 박는 방법으로 겉으로 바느질이 보여도 상관없는 경우의 단이나 소매 끝 등의 처리에 사용한다.



옷감의 안쪽방향으로 시접을
0.5~0.7mm 접는다.



완성선을 접는다.



완성선을 접은 시접 0.1~0.15mm
안에서 박음질 한다



두명 옷감인 경우 시접 분량을
접는 폭만큼 하면 곱게 된다.

2. 작품설명



작품1. 세상풍경

<작품1>

재 료: 모시, 감물

크 기: 55 × 170 (cm)

기 법: 침염

우리한옥에서 마루는 마음이 툭 터지는 공간이었다. 세월의 흐름만큼 윤이 나는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천장 한번 올려다보고, 뒤편으로 트인 뒤편을 건너보면 이 열린 공간이 주는 평안함이 가슴을 가득 채우곤 했다.

방과 방을 잇고 마당과 가옥을 잇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던 마루는 그 평수보다도 훨씬 넓고, 삐걱거리는 소리보다도 더 정겨운 공간이었다.

작품 「세상풍경」은 귀갑살 문양을 이용하여 들어열개창호²⁷⁾을 달아 폐쇄적이던 공간을 개방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넓은 공간을 두어 마루에 앉아 바라보던 세상풍경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27) 들어열개창호란 문짝의 윗줄거미와 문틀의 윗문틀에 돌쩌귀를 달아 문짝을 달고, 이 문짝의 돌쩌귀 반대편을 들어서 서까래나 기타 건축부재에 매단 들쇠(學金)에 얹어 열어놓은 방법이다. 이렇게 열고 닫는 장지를 들장지 또는 들창이라고도 한다.



작품2. 여유로움

<작품2>

재 료: 모시, 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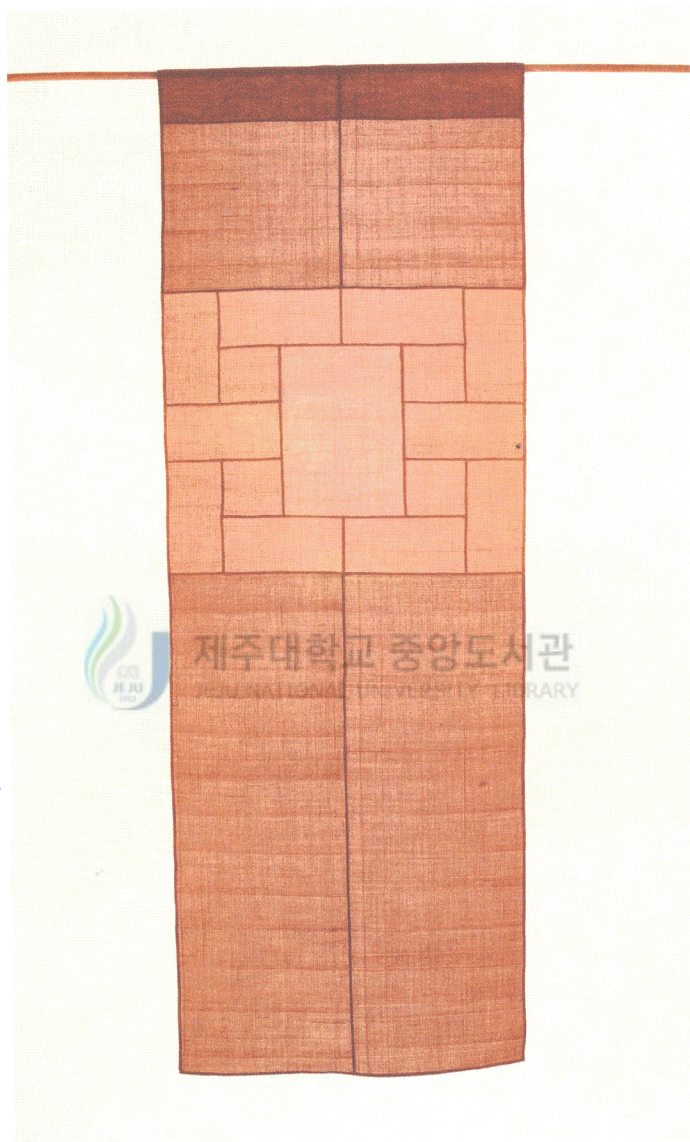
크 기: 90 × 165 (cm)

기 법: 침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그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한 감정들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감성적이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가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필수요건이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여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작품 「여유로움」은 띠살의 창살문양중 수평선의 편평(扁平)함과 차가운 느낌을 수동적이며 균형된 안정감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색상에 있어서는 다양한 색채 사용을 배제하고 수평선의 간결함과 투명성을 핀턱박기만으로 입체적인 효과를 두었다.



작품3. 아름다움

<작품3>

재 료: 모시, 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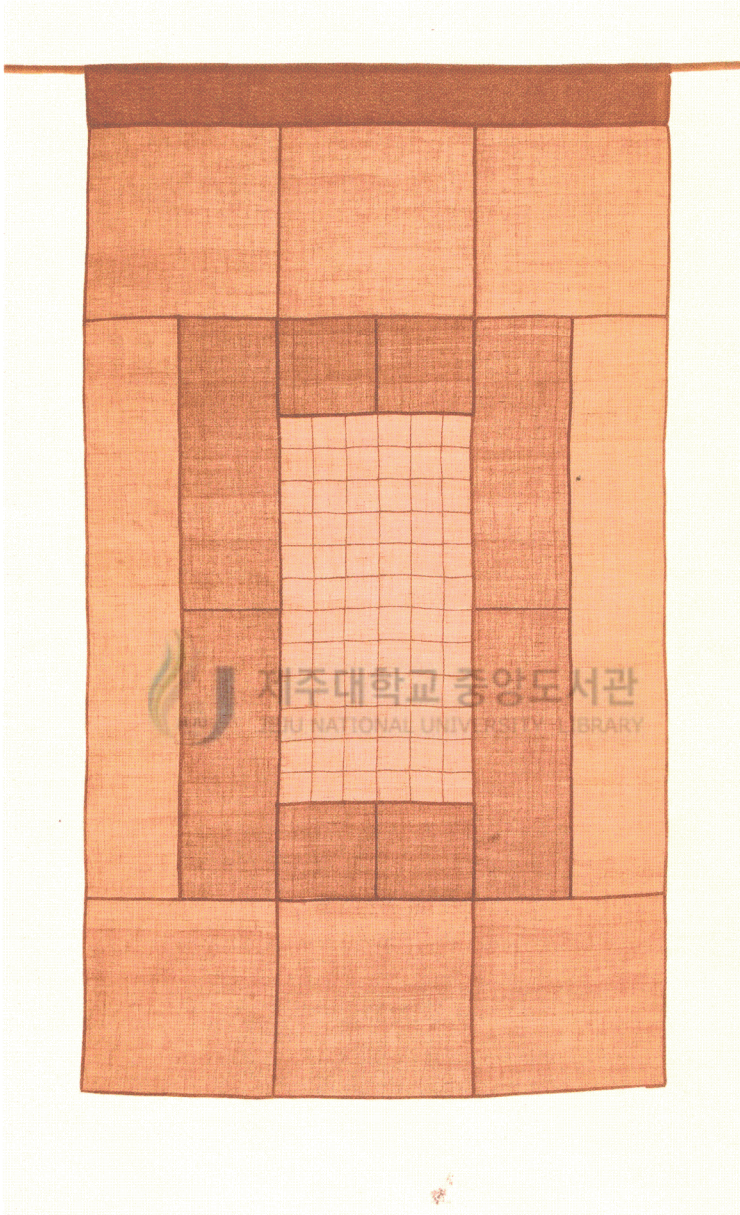
크 기: 60 × 180 (cm)

기 법: 침염

작품 「아름다움」은 아자(亞字)살의 창살문양이 주는 여성적인 아름다움과 규방 여인네들이 바깥세상을 내다보는 통로의 표현이며 부분적으로는 아자살의 형태를 보여주지만 전형적인 용자살의 형태를 갖고 있기도 한 불발기창(窓)이다.

수직·수평의 교차로 이루어진 사각형의 반복을 통해 창살의 직각적 리듬과 변화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규칙적인 형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감물염색의 상반된 색감으로 변화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한국적 아름다움이 단순하고 부드러운 조화미와 조용하고 편안함을 들 수 있다면 선형(線形)으로 구성된 크고 작은 공간이 자아내는 여백의 미는 한국의 창살에 서만이 느낄 수 있는 독자적인 개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4. 고요함

<작품4>

재 료: 모시, 감물

크 기: 90 × 165 (cm)

기 법: 침염

작품 「고요함」은 창살문양에서 정자(井字)살과 용자(用字)살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공간을 조형적 비례에 의하여 분할하고, 궁궐의 정적인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선과 선이 교차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면 하나 하나의 톤과 톤 사이의 조화로 공간의 깊이를 더하고 밀도 있는 공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복된 선에 의한 선의 집합은 또 다른 선을 창출함으로써 선의 무한한 연속성으로 화면을 무한 공간으로 이끌어 간다.

중심부의 정자살 문양에 핀턱박기를 함으로써 입체적인 효과와 전체적으로 안정감과 균형의 미로 구성되어진다.



작품5. 선비의 멋

작품5>

재 료: 모시, 감물

크 기: 50 × 180 (cm)

기 법: 침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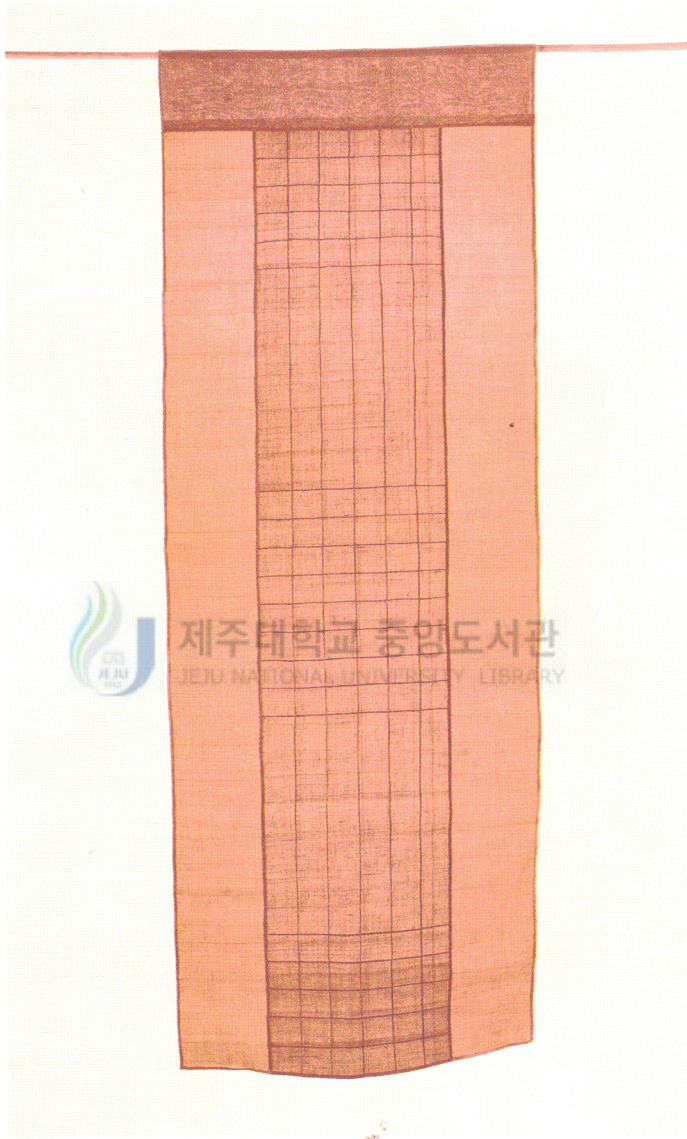
“수(繡) 놓은 발(簾)에 한가히 기대앉았노라니 가벼운 버들 솜이 바람에 흩날린다. 이마 찌푸리고 마음 갈피 못 잡아 꽃 꺾어 든 채 눈물짓고 돌아오는 큰기러기 향해 떠난 곳에서 내 낭군 만나 보았느냐 물어 보았네”²⁸⁾

작품 「선비의 멋」은 서로 종·횡으로 가로지르는 숫대살 창살문양으로 밤이면 밝은 달빛아래 신선주(神仙酒)를 기울이며, 시(詩)한 수 읊던 사랑채의 풍아한 정취를 표현하고자하였다.

수직구도와 수평구도가 조화를 이루고 분할된 면들의 반복과 가장자리의 면적이 공간감을 창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선의 교차와 밀집된 분할에 의한 구성은 창살의 조형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감물염색의 다양한 색감을 배색하여 전체적으로 소박하면서도 화려하게 장식되도록 모색해 보았다.

28) 洛陽春의 詩 귀절



작품6. 석양의 빛

<작품6>

재 료: 모시, 감물

크 기: 60 × 185 (cm)

기 법: 침염

선은 구부러지고 이어져서 문살을 만들고 문살은 변해서 한글이 된다. 모서리는 기억, 니은 가운데는 디귤 .리를 곳곳에 미음. 비읍 등 창살문양은 온통 글자로 채워지고 글자 속에는 사람의 생각이 담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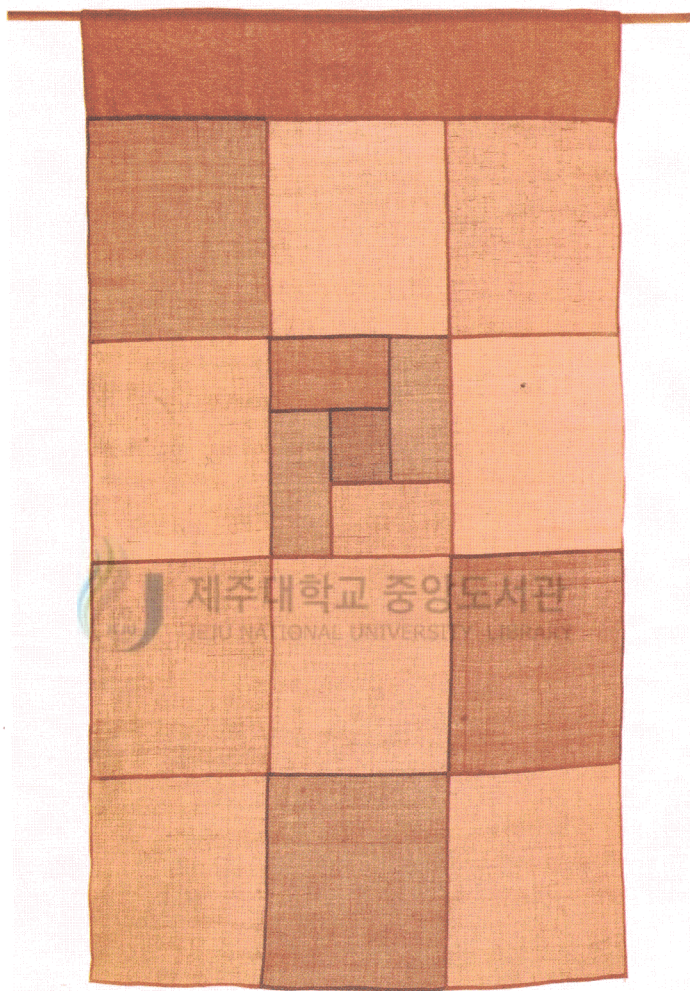
아이는 아이생각 ,어른은 어른생각 아래편은 예전의 꿈, 위편은 오늘의 꿈 햇살이 비치면 뻐꾸뻐꾸 뻐꾸기의 장단에 맞추어 문살이 출렁이고 달빛이 닿으면 부엉부엉 부엉이의 울음에 따라 자리를 펴고 문살이 눕는다.

따가운 바람이 부는 여름철 대낮에는 한켠으로 접혀져서 곱상한 모습이 되고 차가운 눈바람엔 한지의 얇은 막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된다.²⁹⁾

작품 「석양의 빛」은 띠살 창살문양의 원형으로 초가에서 느끼던 편안함을 표현하고자 한 작품으로서 감물염색의 약간 짙은 색감을 사용하여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을 맞이하는 시골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펀터박기를 하여 띠살문양의 입체감을 두었다.

29) 최성자; 「한국의 미」, 지식산업사, 1993, p.144



작품7. 싱그러운 하루

<작품7>

재 료: 모시, 감물, 매염제

크 기: 90 × 13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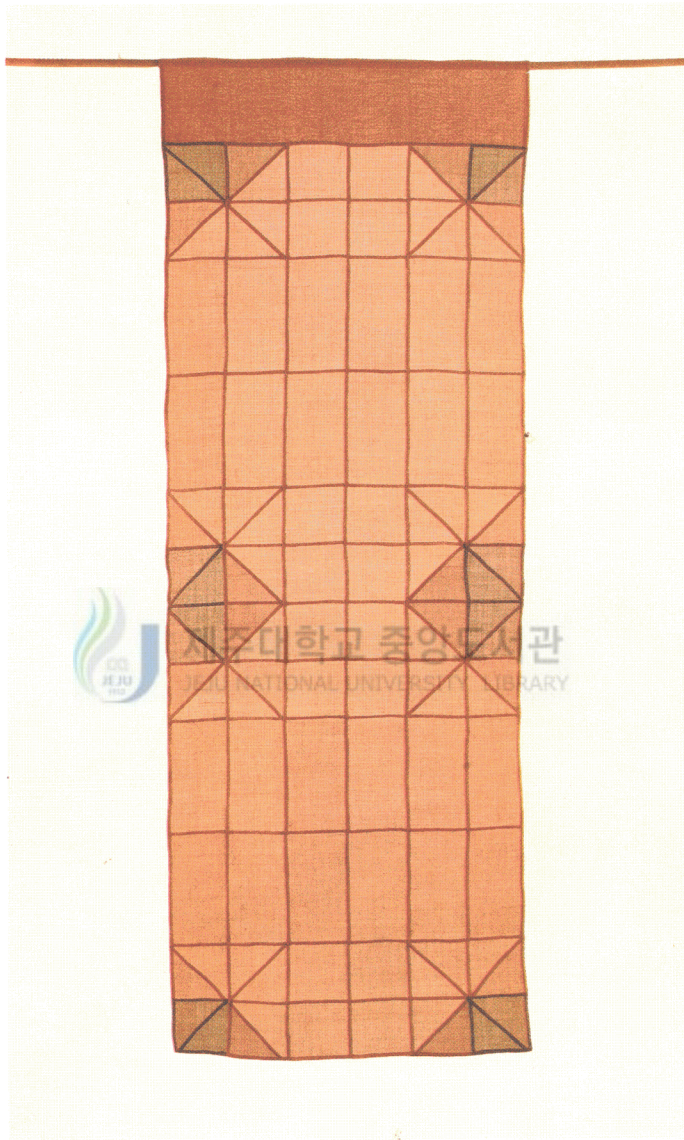
기 법: 침염

작품 「싱그러운 하루」는 창살문양에서 수직, 수평으로 이루어진 용자(用字)살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한없이 단순하고 부드러운 조화미와 선으로만 구성된 크고 작은 공간이 자아내는 여백의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중심부에 또 다른 공간을 배치하여 매염제를 사용한 감물염색의 색감으로, 창살사이로 스며드는 빛의 흐름의 강약과 활력적인 느낌을 두었다.

흐르는 강물처럼, 스쳐가는 시간들처럼 인생에는 순리라는 것이 있다. 가야할 길을 가지 않고는 다다를 수 없는 곳이 있고, 기다리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것이 있고, 진심이 아니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창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창을 바꿀 수도 없고 새로운 인생도 살 수 없다. 그냥 제자리에서 삶의 주변을 서성거릴 뿐이다.



작품8. 아침햇살

<작품8>

재 료: 모시, 감물, 매염제

크 기: 60 × 175 (cm)

기 법: 침염

어스름한 새벽,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신성한 공간. 종이 문 너머로 맑은 새소리 들이 닥칩니다.

간밤의 찬 바닥에서 흥건히 젖었던 번뇌의 땀방울이 모두 실고 난 뒤 창문 사이로 햇살을 만납니다.

문 너머로 당신의 온기를 느낍니다. 벌써 오셨군요. 말없이 서 계신 당신 살며시 열고 들어오십시오. 당신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품 「아침햇살」은 귀갑살문양의 변형으로 창으로 비치는 햇살의 음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전체 화면이 선들의 관계로서 형성되고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느껴져 시각적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질서 있는 기하학적인 구조를 갖추고자 하였다.

반복되는 면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무난하면서도 단조로운 구성에 대칭구조의 균형 있는 면과, 대각선 방향으로 매염제를 사용한 감물염색의 색감으로 대비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작품9. 빛과 향기

<작품9>

재 료: 모시, 감물, 매염제

크 기: 90 × 165 (cm)

기 법: 침염

육모형의 창살위로 소담하게 꽃이 피어있습니다. 어느 꽃밭에 가 앓을까요. 열려진 꽃 봉우리 사이로 한 세상 열리고 순간 슬가서 영원을 느낍니다. 물소리 바람소리 맑은 절집에서 또 다른 한 세상을 만났습니다.

「빛과 향기」는 귀갑살문양의 변형으로 전체적으로 빛의 흐름의 강약과 활력적인 공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중앙에 정사각형의 중심적인 모티브를 두고 사방연속으로 삼각형과 사각형의 다른 모티브를 배열함으로써 빛이 확장해 나가는 듯한 화면구성을 하였으며 광선의 색과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감을 표현하고 색상에 있어서는 색의 대비에 의한 적극적인 표현으로 화면에 생기를 불어넣고 전체적으로 화려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VI. 결 론

우리 선조들의 생활문화에서 미(美)의식과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발(簾)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도구로 장식적이고 공예적인 요소를 지니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왔다. 이러한 발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변화되어 우리 생활공간에 직·간접적, 정적(靜的)으로 예술적인 면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 것을 찾기 위한 노력과 자연염색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이 인정되면서 자연염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에도 자연염색인 감물염색이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감물염색으로 인한 산업도 활발하다.

발(簾)공예품과 자연염색인 감물염색의 자연친화적 접목으로 전통의 미(美)와 창살문양의 기하학적인 조형미를 이용하여 현대적 조형성을 겸비한 9점의 발(簾)을 제작하였으며 본 연구와 작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창살문양은 현대사회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소재로 염색 작품에 응용, 제작함으로써 발(簾)디자인의 표현 가능성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창살문양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사용하여 현대적인 조형미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제시할 수 있었다.

셋째, 제주도의 향토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감물염색의 채도가 낮은 은근하고 부드러운 색감과 모시의 천연질감으로 시각적·심리적인 편안함을 부여할 수 있었다.

발(簾)을 전통공예로서의 예술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분석하여 우리고유의 전통미에 현대감각을 부여한 색상이나 문양, 재료, 디자인에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한다면 전통예술로서의 새로운 가치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삼대자; 「가정과 에너지」, 한국에너지관리공단, 1980.
- 김수석; “한국문양의 고찰과 조형적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제7편, 1968.
- 김영기; 「외부공간에서 본 창살의 조형미」, 디자인, ROL.31, 1979.
- 김영중; “창살문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2.
- 김정기; 「한국목조건축」, 일지사, 1980.
- 박순자; 「갈옷 -그 특성과 전망-」, 경춘사, 2001.
- 박영순 외;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1998.
- 박정원; “한국의 발(簾)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1985.
- 신영훈; 「한국의 고 문양」,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73.
-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95.
- 이정숙; “이조중기출토 면직물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2.
- 이혜선; “갈옷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1994.
- 장기인; 「한국 건축 대계Ⅱ」, 보성문화사, 1980.
- 주남철; 「한국 건축의 장」, 일지사, 1979.
- 주남철; 「한국의 문과 창호」, 대원사, 2001.
- 진성기; 「남국의 세시풍속」,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9.
- 최성자; 「한국의 미」, 지식산업사, 1993.
- 최하림; 「한국인의 멋」, 지식산업사, 1974.
- Kandinsky. W; 「점·선·면」, 열화당, 1984.
- 탐라성주유사 편찬위원회; 「탐라성주유사」, 고씨종문회 총본부, 1979.